佛敎와 天主教의 比較를 통해 본
朝鮮 性理學 社會의 孝倫理의 哲學의 基盤
- 理一分殊論을 中心으로 -

安泳翔**

<table>
<thead>
<tr>
<th>목차</th>
</tr>
</thead>
<tbody>
<tr>
<td>I. 머리말</td>
</tr>
<tr>
<td>II. 사회 구조로서의 ‘이일분수’의 의미</td>
</tr>
<tr>
<td>III. 연환선초 불교와의 관계에서 본 이일분수론의 특징</td>
</tr>
</tbody>
</table>

<국문요약>

동아시아 사회의 특성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부재에 의한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면모는 불교의 同體大悲, 성리학의 理一分殊, 양명학의 萬物一個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한 천주교의 선교사들의 비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같은 집단주의라고 해도 동체대비와 이일분수는 서로 다르다. 이일분수는 無我에 기반한 보편적 합일을 말하는 불교의 동체대비를 비판하면서 천하일가라는 보편가족과 혼연적 자기가족을 통일시키는 논리이다. 혼연적 자기가족에서 출발하는 無我的 비판하면서 자기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 개인의식은 혼연가족 내에서는 한정됨으로 해서 천주교의 아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연구원
가페와 같은 독립된 개인의식을 보여주지 못한다. 즉 '천하일가'라는 커다란 집단 안에 또 '가족 중심'이라는 집단주의가 존재하는 그러한 양상을 띄는데, 여기에서 효의 이념이 절대적 가치로 작동하면서 그것을 밑받침한다.

주제어: 효, 이尹분수, 동체대비 만물일체, 개인주의, 집산주의.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서구와 동아시아 사회를 비교할 때,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부재에 의한 집산주의(collectivism)를 말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졌어도, 주산학을 비판한 양명학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중국이나 불교가 사회 규범으로 크게 작용했던 일본과,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주를 이룬 조선 사회는 구분된다. 특히 조선사회는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그 사회 구조적 특징이 성리학 체계를 선택적으로 채용해 그것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조선의 사회 구조를 성리학 체계로 모두 환원시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선택된 이론 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사회 특징의 일반면을 고려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체계의 핵심으로 '리一分殊論에 근거한 효 개념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성리학이 정착되는 14~16세기의 불교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리학이 고착화되는 17~19세기의 천주교와의 관계를 통하여 '리一分殊論에 근거한 효 개념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이 일반수에 기초한 효는 불교의 '同體大悲에 비하여 개인의 자기의식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혼연가족 내에서의 한정됨으로 해서 천주교의 아가페에서 나타나 것과 같은 독립된 개인의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 볼 것이다.